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96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6.11~2026.06.17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위성곤, 평가, 공항, 투자, 미래
경제·관광	관광객, 성장, 소비, 기반, 반디불
지역·사회	구조, 학생, 사건, 예방, 생태

※ 분석 기간 : 26.06.11.~26.06.17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위성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경제 회복 위한 3천억 추경 편성 - 제주형 BRT 전면 재검토 및 대중교통 혁신 - 교권 보호 및 학생 안전 종합대책 마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 경영평가 미흡에 따른 혁신 요구 - 동복리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 제주해양치유센터 성과 평가 사업 폐지 위기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갈등 해소 정책 토론 및 권고안 - 차기 도정의 제2공항 갈등 종결 구상 - 불법 드론 위협에 따른 제주공항 감시망 확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다오 항로 중앙투자심사 누락 위법 판정 -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투자 철회 위기 - 공공주도 서부해상풍력 사업 투자 유치 실패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제주 AX 대전환 선도 - 10GW 해상풍력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 청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혁신 생태계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항 및 크루즈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 고유가 및 항공 좌석난으로 내국인 관광객 감소 - 미식 및 친환경 등 맞춤형 관광 콘텐츠 확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성장 - 로컬 창업가 및 수출 강소기업 발굴로 경제 활력 제고 - 제주산 농축산물 판매 호조 및 축산 조수입 성장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럭셔리 쇼핑 등 도내 카드 소비 급증 - 고물가 및 내수 침체로 인한 도민 경제 소비 위축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체류형 소비 활성화 지원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및 모바일 기반 행정 서비스로 편의성 증대 -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 - 항만 정비 및 발전소 건설 등 핵심 인프라 기반 강화
	반디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지리 반딧불이 활용 야간 생태관광 프로그램 첫선 - 지역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자생적 로컬관광 모델 구축 -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야간 체험 콘텐츠 마련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 119 협력에 의한 심정지 환자 구조 - 비양도 인근 해상 어선 좌초 및 선원 구조 - 갯바위 고립 낚시객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구조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 침입 초등학교 교사 엮기 테러 사건 -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 대상 성추행 및 폭행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속 발생 우려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달러 위조지폐 제주 면세점 유통 사건 - 6년 교제 연인 흥기 살해 20대 항소심 기각 - 대정읍 단독주택 천만 원대 귀금속 절도 사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 관광지 대상 불법 촬영 범죄 예방 - 여름철 해수욕장 및 항·포구 수난사고 예방 - 고령층 대상 교통사고 및 사기 범죄 예방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순 연안습지 생태 파괴 및 원상복구 촉구 -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내 관광 선박 위협 - 바이오중유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6월 11일~6월 17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05건임
 - 정치·행정 분야 282건, 경제·관광 147건, 지역·사회 376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위성곤, 평가, 공항, 투자, 미래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위성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경제 회복 위한 3천억 추경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 즉시 민생 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3천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할 계획임.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배분액 증가분, 세출 구조조정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임. - 제주형 BRT 전면 재검토 및 대중교통 혁신
-------	-----	---

	<p>위성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해 온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핵심인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이 도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운행 중단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 및 장기적 폐지 수순을 밟을 계획임. ·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통 소외지역과 읍면지역 도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상시 대기 및 즉시 호출이 가능한 맞춤형 지역책임택시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생활 밀착형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실현할 방침임. <p>- 교권 보호 및 학생 안전 종합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의 연쇄 침입 및 교사 대상 엽기적 테러 사건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며, 교권 침해 및 학내 치안 공백 문제를 교육청 소관으로만 돌리지 않고 제주도정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 · 교육청을 비롯하여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주변의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교사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개방형 학교 구조 개선 등 촘촘한 학내 종합 안전망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임.
<p>정치·행정</p>	<p>평가</p>	<p>- JDC 경영평가 미흡에 따른 혁신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면서 기관장의 장기 공석 사태 및 방만 경영에 대한 뼈아픈 지적과 함께 전면적인 경영진 쇄신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임 JDC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조직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경영 혁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헬스케어타운 등 장기간 표류 중인 대형 사업들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p>- 동북리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에 건설 추진 중인 150MW 규모의 대형 LNG 복합발전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소 혼소 운전 시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이 완전히 누락되었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뼈아픈 지적임. · 제주 환경단체들은 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및 제주도의 탄소중립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하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업 승인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차기 도정에서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p>- 제주해양치유센터 성과 평가 사업 폐지 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된 통합재정사업 성과 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경제성 및 사업성 부족, 관련 예산 집행 저조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결국 '사업 폐지' 권고를 받는 심각한 무산 위기에 직면함.

정치·행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해양지구 지정 등 행정의 선제적 நட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성산 지역을 글로벌 해양치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타당성 논리를 보강하고 예산을 적극 확보할 것을 주문함.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갈등 해소 정책 토론 및 권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그동안 발간된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자료집'을 핵심 토대로 삼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주요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대규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 제주도 법정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포함한 '제2공항 갈등 해소 권고안'을 심도 있게 마련 중이며, 이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공식 전달할 예정임. - 차기 도정의 제2공항 갈등 종결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11년째 도민 사회를 찬반으로 극심하게 분열시키며 장기화된 제2공항 갈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취임 후 도민 속의 절차를 거쳐 내년인 2027년 안에는 반드시 문제를 최종 정리하겠다는 굳은 의지 표명임. · 올해 하반기인 9월쯤 제2공항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어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할 계획임. - 불법 드론 위협에 따른 제주공항 감시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제주국제공항 관제권 반경 9.3km 바깥의 애월 지역 등에서 예고 없이 출몰하는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는 아찔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 인력을 기존보다 대폭 증원하여 현장에 투입함. · 오프라인 감시 인력 확대와 더불어, 국내 대표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MAP)과 연계하여 공항 반경 15km 이내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비행 금지 안내 음성을 연중 상시 송출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촘촘한 예방 홍보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함.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다오 항로 중앙투자심사 누락 위법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선사가 화물 확보에 실패하여 손실을 볼 경우 제주도가 3년간 최대 225억 원의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에 대해, 법제처는 이를 명백한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로 규정하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림. · 엄격한 재정 검증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우회하여 도의회 동의만으로 졸속 추진된 위법한 행정 행위로 결론 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삭감 등 강력한 재정 불이익 패널티 조치가 우려되며 위성곤 당선인 역시 막

정치·행정	투자	<p>대한 적자 누적을 근거로 사업의 과감한 존폐 결단을 시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투자 철회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사업이 미국 오버에어 등 핵심 기체 제작사의 극심한 자금난에 따른 파산과 한화시스템, SK텔레콤 등 든든한 국내 대기업들의 잇따른 지분 매각 및 투자 철회로 인해 생태계 조성 기반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함. ·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상용화 인증 기체조차 전무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총 298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성산포항 일대에 대규모 이착륙장(버티포트)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강력하게 질타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속도 조절을 요구함. - 공공주도 서부해상풍력 사업 투자 유치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야심 차게 추진한 181MW 규모의 도내 최대 서부해상풍력(한경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부유식 발전 방식에 따른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과 기업 수익성을 외면한 연간 110억 원의 과도한 도민 이익 공유 기금 납부 조건 등으로 인해 컨소시엄 사업자 재공모에도 단 한 곳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아 최종 유찰됨. · 사업성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와 과도한 이익 환수 조건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공공성과 기업의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절충하는 전면적인 경제성 재검토를 엄중하게 주문함.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제주 AX 대전환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제주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는 1차 산업부터 관광 서비스업, 행정 등 도정 전 분야에 AI 기술을 전면적으로 융합 도입하여, 제주도 전체를 완벽한 독립 전력망과 방대한 데이터를 갖춘 인공지능 기반의 거대한 초연결 생태계 테스트베드로 혁신하려는 미래 지향적 청사진임. · 이를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 막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글로벌 수준의 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및 독자적인 제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제주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지식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핵심 거점으로 전면 재설계할 계획임. - 10GW 해상풍력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임기 내 추자도 2.3GW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착공을 마중물로 삼아 장기적으로 10GW 규모의 압도적인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조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전한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방침임. · 막대하게 생산된 청정 잉여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획기적인 해저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을 광주·전남 등과 협력 도모하며,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함. - 청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혁신 생태계

경제·관광	관광객	<p>부권 수요를 대거 흡수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에 성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도내 신용카드 소비가 월 625억 원 규모로 급증하였으며, 기존의 단순 관광을 넘어 제주시 중심의 쇼핑, 의료 및 뷰티 업종, 서귀포시 중심의 숙박 및 체류형 외식 산업 등으로 관광 소비 카테고리가 대폭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함. <p>- 고유가 및 항공 좌석난으로 내국인 관광객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전쟁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할증료 폭등과 대형 항공사 합병에 따른 제주 노선 항공 좌석난이 심화되면서, 지난 5월 기준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8% 감소하며 9개월 만에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되어 지역 관광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됨. · 내국인 출도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객 수와 매출액이 동반 하락하며 경영 평가 하위 등급의 위기에 직면하자, 할인 쿠폰 증정 및 신규 브랜드 입점, 면세 한도 방식 변경 추진 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함. <p>- 미식 및 친환경 등 맞춤형 관광 콘텐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이 직접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 제주의 제철 향토 음식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오감 체험형 미식 프로그램 '제주미(味)행'과 지역 내 가심비 맛집 2곳을 방문해 SNS에 인증하면 탐나는전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계하여 체류형 로컬 미식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넓힘. ·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주 체류 기간 중 전기차 렌터카를 2일 이상 이용하고 디지털 관광증에 가입한 관광객에게 2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혜택을 제공하는 친환경 여행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률 향상 및 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함.
	성장	<p>- 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와 AI 신약개발 기업의 긴밀한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AI 기반 원스톱 지능형 바이오산업 기업지원 플랫폼'을 본격 출범시킴으로써, 풍부한 지역 천연자원 데이터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및 융합 바이오 소재 발굴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를 이끔. · 총 627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제주 앵커사업'을 통해 도내 주요 대학들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항공우주,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전략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초광역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 및 연구 런케이션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함. <p>- 로컬 창업가 및 수출 강소기업 발굴로 경제 활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우수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THE 제주크리에이터'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고 도민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기업에게 최대 6,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진출 컨설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함. · 기술력과 해외 진출 역량을 두루 갖춘 도내 유망 중소기업 4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수출 바우처 혜택 부여와 금융 우대 지원 등 체계적인 맞춤형 사후 관리를 제공하여 기업의 고도 성장

경제·관광	성장	<p>과 더불어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농축산물 판매 호조 및 축산 조수입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양돈 분야 출하량 조절에 따른 돼지고기 경락가 10.3% 상승과 한우 가격 안정화, 가금류 산지 가격 인상 등 주요 축종의 고른 호조세가 맞물려 지난해 제주 지역 축산 분야 총 조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1조 4,208억 원을 돌파하며 전반적인 1차 산업 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증명함. · 도 차원의 전략적 마케팅 지원과 농협 공동사업법인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도권 대형마트 및 홈쇼핑 채널 등으로 유통망을 대폭 확대한 결과, 고당도 고품질 제주산 블루베리의 누적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73% 급증한 38억 원을 달성하며 감귤을 잇는 차세대 고소득 유망 과수로 자리매김함.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럭셔리 쇼핑 등 도내 카드 소비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5월 기준 도내 외국인 신용카드 총결제액이 625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제주시 지역은 면세점과 뷰티 업종이 밀집한 연동 및 노형동을 중심으로 전체 소비의 65%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서귀포시는 안덕면과 예래동 리조트 인근의 고품격 체류형 숙박 및 외식 소비가 두드러짐. · 중국인 관광객들의 폭발적인 소비력 확대로 평균 결제 단가가 600만 원을 상회하는 하이엔드 시계, 귀금속, 액세서리 등의 초고가 럭셔리 상품군 매출이 급성장하였으며, 기존의 단순 관람형 여행에서 벗어나 고급 체류 시설과 결합된 하이엔드 소비 트렌드가 지역 상권의 매출을 크게 견인함. - 고물가 및 내수 침체로 인한 도민 경제 소비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국내 항공료의 가파른 상승세가 소비자물가 전반을 밀어 올리면서 체감 경기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하고 도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폭 역시 크게 둔화되는 등 지역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됨. · 내국인 관광객 방문 감소와 도민들의 지갑 닫기가 맞물리면서 지역 내수 경제의 척도인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00명 감소하여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서비스업 기반의 전반적인 고용 시장 및 골목상권 체감 소비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임.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체류형 소비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제1호 '백년시장'으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2년간 30억 원의 재정 투입을 확정 지었으며, 탐라 신화 연계 브랜드 개발과 야간 경관 정비, 크루즈 관광객 특화 체험 동선 확충을 통해 글로벌 관광형 체류 상권으로 변모함. · 서귀포 매일올레시장과 인접한 중심상가 일대가 정부의 '글로벌 상권' 및 '골목형 상점가' 육성 대상에 잇따라 지정되면서 다국어 안내 체계와 AI 마케팅 플랫폼 도입, 온누리상품권 상시 할인 혜택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강력한 핵심 소비 거점으로 집중 육성함.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및 모바일 기반 행정 서비스로 편의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의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조기납세자 1,100명을 추첨해 제공하던 기존 지류형 상품권 인센티브를 전자 결제가 즉시 가능한 모바일 알림톡 기반의 '탐나는전 정책수당'으로 전면 개편

경제·관광	<p style="text-align: center;">기반</p>	<p>하여 이용자의 수령 편의성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잠재된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새롭게 기획하였으며, AI 기반 서비스 평가지표를 최초로 도입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중심의 튼튼한 창업 생태계 기반을 다짐. <p>-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박한 창업 환경과 벤처 투자 한파 속에서도 지역 청년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스케일업'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모의투자 배틀과 전문 투자자 간 1대1 심층 밋업 등 실전형 IR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하여 실질적인 외부 자금 유치 기반을 확고히 다짐. ·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제주 로컬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자금을 모으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지원부터 유명 이커머스 '컬리(Kurly)' 기획전 입점, 신라면세점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진출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전주기적 맞춤형 판로 개척 망을 촘촘하게 구축함. <p>- 항만 정비 및 발전소 건설 등 핵심 인프라 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500억 원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150MW급 '동제주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이 전격 체결되었으며, 전압을 균일하게 조절하는 최신 동기조상기 설비와 청정수소 발전 전환용 터빈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한계를 극복하고 도내 전력망 수급 안정의 핵심 기반을 완성함. · 도내 여객 및 화물 물류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제주항과 화순항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일시 중지되었던 보수 정비 공사를 재개하여 방충재 전면 교체, 기존 부벽 보강, 콘크리트 재포장 등을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항만 이용자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해상 물류의 기반을 공고히 함.
	<p style="text-align: center;">반딧불</p>	<p>- 저지리 반딧불이 활용 야간 생태관광 프로그램 첫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맑고 깨끗한 생태 환경의 지표종인 반딧불이와 천혜의 곳자왈 숲을 접목한 '2026 저지리 반딧불이 탐험대' 행사가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서 13일부터 보름간 개최되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제주의 신비로운 생태계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형태의 고품격 야간 관광 콘텐츠로 화려한 첫선을 보임. · 전문 도슨트 교육을 수료한 마을 주민 해설사가 직접 탐방객들과 동행하여 곳자왈의 지질학적 특성과 반딧불이의 서식 환경 및 생태적 보호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워 주는 긍정적인 생태 교육의 장을 제공함. <p>- 지역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자생적 로컬관광 모델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반딧불이 축제는 외부 자본이나 행정 기관 중심의 일방향적 행사 기획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민들로 결성된 '덤부리협동조합'이 기획부터 운영 전반을 직접 총괄함으로써 마을 고유의 자연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 수익 창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을 새롭게 제시함. · 야간 숲속 탐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지역 특산물 먹거리 장터와 친환경 굿즈 체험 부스를 탐방로 인근에 다채롭게 배치하여, 방문객과 지역 공동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문화적 교류를 유도하고 발생한 관

지역·사회	구조	<p>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현장에서 환자의 자발순환을 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구조 사례가 이달에만 연이어 4건 발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인 36%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정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당국은 응급처치 교육 및 안내 리플릿 배포 등 도민 대상 초기 구조 역량 강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p>- 비양도 인근 해상 어선 좌초 및 선원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남쪽 해상에서 71t급 채낚기 어선이 조업 중 얕은 수심의 암초 등에 부딪혀 좌초되는 사고가 신고 접수되었으나, 해경의 경비함정과 구조대 및 연안구조정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대응으로 승선원 8명 전원이 건강에 큰 이상 없이 무사히 구조됨. -해경은 선체 중앙부에 발생한 약 1m 규모의 파공으로 인한 선체 침수와 침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자체 배수펌프를 동원해 긴급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선체에 리프트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선단선을 연결해 한림항으로 안전하게 예인 작업을 마침. <p>- 갯바위 고립 낚시객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해안가 갯바위에서 간조 시간을 착각하여 순식간에 차오른 밀물에 고립된 60대 낚시객이 소방당국과 해경의 신속한 공동 대응을 통해 동력구조보트를 이용해 육상으로 안전하게 구조되는 야간 수난 사고 대응 성과를 보임.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추자도 등 도서지역의 보건지소에서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며 긴급 이송이 필요한 60대 중증 응급환자를 해경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제주시 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며 귀중한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함.
	학생	<p>- 외부인 침입 초등학교 교사 엽기 테러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시 관내 한 초등학교에 10대 고등학생이 야간 시간대 미잠금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하여 20대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연쇄 테러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입건됨. -해당 범행으로 극심한 교권 침해 및 학교 안전망 붕괴 우려가 지역사회로 확산함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및 교원단체 등은 개방형 학교 구조의 개선과 지능형 CCTV 확충 등 근본적인 학생과 교직원 보호 및 심리 치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p>-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 대상 성추행 및 폭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시 내 한 유명 전통시장에서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이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타지역 여자 고등학생 5명에게 다가가 강제로 어깨동무를 하는 등 무차별적인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됨. -가해 남성은 자신의 성추행 범행을 강력히 제지하며 항의하던 같은 학교 남자 고등학생들과 시비가 붙자 학생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행까지 행사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숨겨진 추가

지역·사회	학생	<p>피해자 여부를 집중 수사 중임.</p> <p>-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속 발생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6년이 지났음에도 제주지역 스쿨존에서 방과 후 시간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 및 부상자가 최근 급증하며 아이들의 안전망에 여전한 위험 요소가 잔존함. · -학생들의 절대적인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단 등 유관 기관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대상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 현황, 안전시설 상태, 차량 통행량 등을 분석하는 종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 중임.
	사건	<p>- 100달러 위조지폐 제주 면세점 유통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에서 신원 불상의 용의자가 정교하게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사용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매한 범행이 연이어 발생하여 경찰이 당시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용의자 추적 수사에 돌입함. · -해당 범행에 사용된 위조지폐는 국내의 삼중 감시망을 모두 무사히 통과할 정도로 치밀하게 제작되어 홍콩 은행의 외환 거래 과정에서 뒤늦게 적발되었으며, 이에 면세점 측은 외화 현금 수납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추가 범죄 차단을 위한 방어 대책을 강화함. <p>- 6년 교제 연인 흥기 살해 20대 항소심 기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오랜 기간 교제하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20대 여성 연인을 말다툼 끝에 주방에 있던 흥기로 찔려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 피의자에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함. ·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서 의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평소 주취 폭력 성향과 범행 전후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근거로 변명을 배척하고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항소를 최종 기각함. <p>- 대정읍 단독주택 천만 원대 귀금속 절도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대정읍 농촌 지역에서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빈 단독주택 3곳에 연쇄적으로 무단 침입하여 목걸이 등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구속 송치됨. · -피의자는 훔친 귀금속을 제주시 내 중고 금은방 업체에 판매해 생활비 및 유희비로 전액 탕진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에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 주민들의 농촌 빈집털이 치안 강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고취함.
	예방	<p>- 하절기 관광지 대상 불법 촬영 범죄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관광객이 대거 집중되는 주요 해수욕장, 공영관광지,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특별 편성하여 화장실과 탈의실 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기기

	예방	<p>단속을 대폭 강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전파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며,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시 불법 촬영 예방 안전 지표를 신설해 민간 업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관리 동참을 유도함. <p>- 여름철 해수욕장 및 항·포구 수난사고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피서객이 몰림에 따라 수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는 공무원과 안전요원 455명을 조기 투입하고 항·포구와 비지정 물놀이 지역 32곳까지 감시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함. · -인명구조함과 훼손된 안전펜스 등 해변 안전시설을 집중 보강하고, 소방안전 본부는 무인구조보드와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 장비를 활용한 수난구조 특별 훈련을 실시하여 여름철 반복되는 해상 및 수중 사고에 대비한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고도화함. <p>- 고령층 대상 교통사고 및 사기 범죄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귀포 지역 특성상 생계형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관할 경찰은 노인회 등 지역 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심야 시간대 교통사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순찰을 강화함. · -정보 취약계층인 농어촌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영세 자영업자 대상 노쇼 사기 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홍보 활동에 주력하며, 지역 방법대와 연계한 범죄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치안 인프라 확충에 집중함.
	생태	<p>- 화순 연안습지 생태 파괴 및 원상복구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가 해수욕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반려동물 특화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담수어류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이 집단 서식하는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소하천 연안습지를 콘크리트로 매립하여 극심한 생태계 훼손 논란이 불거짐. · -도내 환경단체와 정당 등 시민사회는 해당 구역이 해양수산부 해양생태도 1등급으로 지정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지적하며, 행정 당국의 무분별한 난개발 공사 즉각 중단과 파괴된 습지 생태계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함. <p>-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내 관광 선박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요트 투어 관광 선박과 배낚시 어선들이 지속해서 근접 추격함에 따라 돌고래의 초음파 교류 방해 및 새끼 돌고래의 출산과 육아 등 서식 생태계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함. · -해양생태계법 개정예 따라 선박의 돌고래 근접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해상 단속의 물리적 어려움으로 실질적 처벌이 미미하여, 시민 신고 창구 활성화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생태계 보호 대책이 시급함.

지역·사회	생태	<p>- 바이오중유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화력발전의 대안으로 가동 중인 바이오중유 발전소 6기에서 발생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기존과 대비해 뚜렷한 개선 없이 배출되고 있어 인근 생태계와 주민 호흡기 질환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됨. · -기후환경단체는 해당 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엄격한 실태 점검과 연료 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설계 수명이 곧 만료되는 구형 발전기에 대해 무리한 수명 연장 없는 단계적 폐쇄 방침을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